

## Workshop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과 환경선교

### #3 생태환경교육과 교육교재

김 진아 목사(기장 총회교육원 교재부장)

#### 들어가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생태환경교육을 교회현장과 연결하여 진행 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우리가 교회현장에서 진행해 나갈 교육을 위해 우리의 선 자리와 과제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진행한 생태환경교육 관련한 설문은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교회교육에서 생태환경교육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매우 중요 62.6%, 중요 30.6%, 총 93.2%) 이어서 미래세대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부분은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식 부족(49%), 그리고 교육관련 프로그램, 교재, 교구의 부족(45.9%)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교회현장에서 생태환경교육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중요한 교육이라는 인식과 공감, 그러나 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교육의 도구(tools)가 너무 없다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둘 사이에 환경선교사로 사역할 우리가 서있다고 본다.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인데 도구가 너무 없다.’ 왜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

생태환경이라는 주제가 이제껏 교회와 관련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롭게 등장한 주제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

#### 1. 교회가 창조질서의 보전을 신학적 주제로 삼고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기억

"JPIC는 2000년대에 대한 에큐메니칼 비전의 핵심이다." 이는 1990년 JPIC 서울대회에서 채택된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생명이 위협받는 전 세계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세계교회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깨닫고 JPIC를 교회의 신학적, 목회적 주제로 삼고 나아갈 것을 고백하게 된다. 당시 한국사회의 현실은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주제들이 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현장이었기에, 세계교회협의회와 당시 세계개척교회연맹(WARC)의 결정으로 한국에서 JPIC 대회가 열리게 된다.

JPIC 서울대회 이후 교회의 노력은 JPIC 공동교재개발작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동교재개발은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주관하고 4개 교단이 연합하여 집필과 편집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7개 교단이 공동 사용하는 형식이였다. 이 공동교재개발 프로젝트 첫 번째 해의 주제는 “아름다운 세상”<sup>1)</sup>이었고, 부서별로 창조세계의 보전을 내용으로 한 다섯과로 구성된 교재가 나오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주제로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고 끝을 맺게 된다.

1) 다음의 내용은 1990년 여름수련회 공동교재 “아름다운 세상” 고등부 1과 내용의 일부이다. 국제연합환경회의에서 발표한 인간환경선언(1972년 6월)에 따르면 우리는 “역사상의 한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무지와 무관심에 빠지면 우리들의 생명과 복지의 기반인 지구상의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국민의 93%가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80년대 한국사회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이외에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WCC 폭력극복 10년 운동의 경험이 있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 추구를 목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함께하기로 한 이 운동에서 다루어진 중심 주제들 가운데에도 피조물에 대한 폭력은 극복되어야 할 폭력<sup>2)</sup>으로 명시되어 다루어 졌다.

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경험은 2006년 세계교회협의회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발표된 아가페 부름(AGAPE<sup>3)</sup> Call)이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개념으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림살이로서 ‘생명경제’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이익과 경제성장이라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가치를 넘어서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

그 깊이와 종류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질서의 보전과 관련하여 교회의 경험이 누적되어 가는 동안, 생명, 생태, 환경이라는 언어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세계의 돌봄과 회복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당연한 과제처럼 인식되어갔다. 이제는 교단을 막론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문서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생태환경에 대한 주제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생명, 창조질서의 보전, 생태환경의 주제들은 교회의 안팎에서 제법 익숙하게 회자되고, 필요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2. 생태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한 교회의 적용 성찰(reflection)하기

그렇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생태환경 주제에 대한 교회의 적용은 무엇이었나?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생비누 사용하기, 주말농장 가꾸기, 생명밥상 빈그릇 서약운동, EM사용하기, 등이다. 생태환경이라는 주제를 대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실천을 소비의 차원에서 고민하며 주로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여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활동적인 그룹들은 이러한 소비실천에 참여하며 생태환경이라는 주제를 교회에서 적용하는 핵심적인 주체들이 되어 갔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다다른 지점은 어디일까? 생태환경 주제들을 신앙인들이 관심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 뭔가 실천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에는 광범위한 공감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안팎에서 생태환경의 주제가 등장하는 빈도수에 비해 공동체의 변화를 동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간과해 온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우리의 주제는 문화적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주제이다.” 이는 1990년도 여름공동교재 주제해설의 첫 번째 문장이다. 이 말은 교회의 생태환경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소비의 습관을 바꾸고 선택을 다르게 하는 일이 지속성과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와 이유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사

2) 폭력극복 10년 운동에서 관심한 극복되어야 할 폭력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들 간의 폭력, 국가 안에서의 폭력, 가정과 가족 내에서의 폭력, 교회 내에서의 폭력, 성폭력, 사회 경제적 폭력, 종교적/문화적 행위와 관련된 폭력, 피조물에 대한 폭력, 인종차별주의와 인종 혐오주의로 인한 폭력 등이 이다.

3) AGAPE는 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and Earth의 약자 표기이다.

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지금 내 삶과 신앙과는 어떤 관련성과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내가 깊이 체득해야 한다. 오염과 파괴의 현장을 보고 놀라며 주목했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세계를 일그러뜨리는 삶의 구조 그리고 인식의 체계에 대해 깊이 묻지 않고, 내 관점과 사고와 실천의 틀을 바꾸는 치열한 교육의 과정을 결여한 채 교회는 '방법'에 관심했다. 가치와 방향을 세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결여된 채 방법의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제한한 것이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생태환경교육이 환경주의에 하는 행사나 이벤트로 이해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한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이 계몽적인 요소를 갖춘 대중적인 실천사항들을 권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신학적 담론의 적용을 방법의 문제에 머무르게 한 결과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타협점을 찾거나 연중행사로 편성하여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넘어야 할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생태환경교육을 교회현장과 연결하여 진행 할 때 우리가 먼저 마주하게 될 현실 또한 이미 알고 있고 다 해 봤다는 그것들과의 만남일 것이다.

### 3. 실천을 생명력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일 - 생태환경교육의 핵심적인 전제들

생태환경교육을 펼쳐갈 교육자들의 관심은 먼저 생명을 생명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생명의 근원과 그 생명의 회복, 그리고 풍성함을 담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관점의 수정 또는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의 훼손과 파괴의 문제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로 나아간다. 문제제기의 과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깨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자본의 속성과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가치와 의미의 기준을 정하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그에 따라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현실은 산업화와 자본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발전의 시대에 불가피하게 파생된 오염과 안전의 문제인 것으로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이자 죽임의 문화로 인식하고, 그 일로부터 단호하게 멀어지고 돌이키려는 결단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실천은 동력을 얻고 지속성과 확정성을 갖춘 교육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마음과 연결된 생명력 있는 실천에 이르는 일, 머리로만, 또는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구현하는 지식 (embodied knowledge)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 시대의 환경교육은 이전세대의 교육이 담당했던 계몽의 역할을 요청받는 교육이 더 이상 아니다. 도리어 어떤 교육의 영역보다 본격적이고 급진적이며, 치열하고 도전적이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성서가 증언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관점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생명 훼손과 파괴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결단하며, 소명적 결단이 이끄는 삶의 적용을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생각과 실천의 변화로 드러내는 교육이라고 하겠다.

우리 시대에 펼쳐질 생태환경교육을 생각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지도자가 묻고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자, 교육교재나 자료의 내용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전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기 - 대상화, 인간의 목적을 위한 파괴와 훼손의 정당화

“자연은 인간을 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자원이고, 정복하여 개발의 목적으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인간의 편리와 욕구충족을 위해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하고 바꾸어 써보자

2) 남성중심주의를 벗어나기 - 중심, 힘에 기반 한 권위, 수직적 질서, 인간에 대한 획일적 이해

“인간의 기준은 남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이 남자이고 여자는 그를 돕는 역할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도 남자이며,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질서이다.”

다시 생각하고 바꾸어 써보자

3) 성장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하기 - excellence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성장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는 것, 숫자가 늘어나 많아지는 것,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통해 타인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하고 바꾸어 써보자

4) 생명이 회복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맺음 속에서 이루어질 살롬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삶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상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야 할 세상이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윤추적을 많이 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다시 생각하고 바꾸어 써보자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왜곡된 관점과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다시 생각하고 써보는 과정은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 교육의 과정(curriculum)을 도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또한 환경선교사가 되어 교회 안팎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성찰되어야 할 신학적 내용이자 방향이다.

#### 4. 아이디어에서 교육을 위한 교재로 - 교재를 만드는 단계들

##### 1) 교육의 목적과 방향 (Purpose & Direction)

교육자가 설계하려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신앙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하는 교육이라면 주제와 함께 묵상할 성서의 텍스트도 이 단계에서 결정한다.

목적과 함께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참가자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격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2) 삶의 상황과 다루는 범위 (Context & Scope)

우리가 주목하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교육주제로 제시되고 있는 삶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비중 있는 주제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주제를 다루는 깊이와 폭을 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 3) 교육의 참가자와 접근방식 (Participants & Tools)

주제와 교육의 참가자를 연결하는 단계이다. 교육의 참가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교육의 자리에서 그들과 소통할 때 교육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핀다. 이 단계에서 발달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재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접근방식이 결정된다.

##### 4) 주제를 다루어가는 과정, 교육의 단계 (Process & Steps)

어떻게 주제와 만나게 할지, 어떻게 주제를 펼쳐나갈지, 어떻게 주제와 삶을 연결하게 할지를 생각하며 교육의 단계를 결정한다. 주제의 접근성과 난이도에 따라 교육과정의 단계들이 간추려지거나 세분화되기도 한다.

##### 5) 교육의 방법 다양화하기 (Methods & Multiplying Choices)

교재의 교육 단계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경험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한다. 이 방법은 교육과정 전체에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며 적용의 실천방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의 방법은 교육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의 지점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6) 교육과정의 연결과 공동체적 성찰 (Linking & Feedback, Communal Reflection)

교육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주제의 범위,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 후 교육의 참가자의 눈높이와 특징을 고려한 언어와 접근방식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제 교육의 단계들 속에 다양한 교육의 도구와 방법들을 배열하고 연결하는 단계이다. 한 과가 진행되는 흐름을 생각하며 주제를 알고 배워가기에 적절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구성한다.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이 완료되면 공동체가 함께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며 의견과 제안을 나누는 그룹 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재를 통해 이루어질 배움의 과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을 모으고 토론하고 제안하는 과정이다.

## 나가며

교육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의도된 경험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기풍(ethos)을 바꾸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충분히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은 삶의 실천을 결정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명을 인식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와 방향을 내 삶의 가치와 방향으로 하는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선택을 구조화하는 일이 교육의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바로 교재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다. 다만 우리의 신앙 속에 뿌리내려 생명력 있게 이어지게 할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생태환경교육의 확장과 적용을 위한 지도력을 육성하는 이 과정이, 물어져야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묻고, 다양한 실천과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며,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이 되어,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생명을 문제를 넉넉히 보듬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